

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

-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교육 실현 -

2025. 1. 10.



교육부

순 서

I. 정부 전반기 성과 및 평가	1
II. 2025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	2
III. 2025년 핵심 추진과제	4
IV. 2025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	17

I. 정부 전반기 성과 및 평가

□ 국가책임 교육·돌봄체계 공고화로 돌봄 공백 해결

- 30년 만에 유치원·어린이집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, 통합모델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^{가칭}영·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('24. 150개)
- 늘봄학교 시범운영('23)을 거쳐 '24.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하여 초1 희망자 29.6만 명(전체 중 83.4%) 전원 참여, 학부모 만족도 80% 이상

□ 학교 현장의 회복과 미래교육으로의 대혁신 계기 마련

- 2028 대입개편안 확정('23.12.),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5법 개정 완료(~'23.12.), 학폭 전담조사관 도입('23.12.) 등 학교교육 정상화 노력
-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 마련('23.6.),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신설에 따른 '교실혁명 선도교사' 연수 실시(1.15만 명, '24)
- 고교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협약형 특성화고 10개 신규 선정('24.5.)

□ 지역 교육력 제고 및 지역 주도 대학혁신을 위한 기반 마련

- 지자체, 교육청, 대학, 지역 산업체 등이 협력하여 지역맞춤형 공교육 혁신으로 지역을 살리는 '교육발전특구' 지정('24. 총 56건 시범지역 지정)
- 교육부는 '라이즈 지원전략'을 수립하고, 17개 시도는 라이즈 추진체계 구축 및 5개년 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라이즈 전면 시행('25) 기반 마련
- 글로벌대학 지정(~'24. 20개), 맞춤형 규제 특례를 발굴 및 적용으로 대학 전반에 혁신 확산, 대학 자율 혁신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

개선 필요사항

- ☞ 그간 구축한 교육개혁 기반 위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의 성과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
- ☞ 두터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촘촘히 확인하고 정책자원을 집중하여 기회의 사다리로서 교육의 역할 강화 필요

Ⅱ. 2025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

1 추진 여건

□ 생애 초기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 절실

-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 돌봄 등을 위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생애 초기 단계부터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격차 발생 우려
- 유보통합, 늘봄학교 등 그간 구축된 국가책임 교육·돌봄 서비스의 양과 질 제고를 통해 걱정 없는 돌봄 제공과 사교육 부담 흡수 필요

□ 학생별 다양한 학습 수요에 대응하는 공교육으로의 변화 요구

- 다양한 수준과 학습속도를 가진 학생들에게 획일적 교육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으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 흥미 저하 및 사교육 의존
- 증가하는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가계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중이며, 공교육 내실화 및 관련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가 있는 상황

□ 학생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교육받을 권리 보장 필요

- 학생의 학습참여를 저해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진단·해소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체계 구축 필요
- 특수교육대상자 증가 추세를 감안한 적정 수의 특수교사 확보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특수학교(급) 확대가 지속 필요한 상황
- 이주배경학생의 특정지역 밀집현상 심화되며, 교육지원이 필요한 중도입국·외국인학생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맞춤형 학업지원이 필수적

□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교육의 역할 확대 요구

- 인구감소 및 지역 인구 유출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역정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교육여건 개선 요구 증대
- 대학은 고등교육 및 연구 목적의 우수한 인적·물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지역혁신의 허브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 수행 필요

2 추진 방향

비전	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공정한 교육 실현	
목표	모두를 위한 맞춤형교육으로 교육격차 해소	
3대 분야	정책방향	핵심 추진과제
국가책임 교육·돌봄	① 출발선 평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영유아 교육·보육 강화 ○ 늘봄학교 확산
	② 사교육·입시 부담 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교육 수요 흡수를 위한 공공 서비스 제공 ○ 디지털 기반 맞춤형교육으로 교육격차 해소 ○ 배움에 집중할 수 있는 고교교육 환경 조성
교육 현장의 담대한 변화	③ 맞춤형 지원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로 패러다임 전환 ○ 우선 지원대상에 대한 두터운 지원 ○ 교사의 수업전념 여건 조성 ○ 학생의 건강한 성장·발달 지원
	④ 지역 격차 해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육발전특구로 지역 교육력 향상 ○ 대학이 성장동력이 되는 지역의 변화 ○ 평생학습으로 미래대응 역량 제고
지방과 국가의 동반 도약	⑤ 청년 성장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고교 직업교육 혁신으로 우수 기술인재 육성 ○ 학자금 및 주거 지원으로 고등교육 기회 확대 ○ 일자리 연계로 취업준비 부담 경감 ○ 청년의 역량 발휘 지원

추진 기반

데이터 수집·분석 시스템 구축

글로벌 교육 거버넌스 선도

Ⅲ. 2025년 핵심 추진과제

정책방향 ①

출발선 평등

- ◆ 3~5세 단계적 무상교육·보육 실현을 통한 국가책임 교육·보육 강화
- ◆ 전체 초1·2의 80% 이상이 늘봄학교에 참여할수 있도록 지원하여 교육·돌봄공백 해소

① 영유아 교육·보육 강화

□ 유보통합을 위한 제도 개선 본격 추진

- '영유아 최우선'을 원칙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유치원-어린이집의 통합 기준(교사 자격·양성체제, 설립·운영 기준 등) 마련 및 통합법 제정 추진
- 지방 단위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3법* 개정을 완료하고, 지자체-교육청 간 사무 이관 준비 및 자치규정 정비 등 추진
 - * 영유아보육법,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,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- 중앙재원을 안정적으로 통합·운용하기 위해 교육부 소관 국고 일부와 유특회계('25년말 일몰)를 통합한 영유아 특별회계 신설 추진

□ 단계적 무상교육·보육 실현

- 유아교육·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및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'27년까지 3~5세 단계적 무상교육·보육 실현
 - 유아교육비·보육료 추가지원(월 5만원) 대상을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*하고('25), 학부모 양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 노력 지속 추진
 - * 추가지원(5만 원) 총 예산 : ('24) 173,539백만원 → ('25) 327,160백만원

□ 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·돌봄 서비스 제공

- '24년 대폭 확충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(2,315개반)의 안정적 운영 지원 및 확대* 기반 구축, 거점형 돌봄기관**을 통한 수요 맞춤형 돌봄 운영
 - * 시간제반 이용 아동 6만 명, 제공기관 3,600개 반 수준으로 확대 예정('~27)
 - ** '25년 아침·저녁·방학 돌봄, 토요(휴일)돌봄 운영 예정('25. 약 50개원, 신규)
- 유아 발달 및 학부모 수요 등을 고려한 특색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고 우수사례 발굴·확산
 - ※ 자체운영(방과후 놀이배움터) 프로그램, 늘봄연계 돌봄 등 운영기관 확대 ('25. 약 770개원)

② 늘봄학교 확산

□ '25년 초등학교 2학년까지 안정적으로 확대

- '25년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1·2 전원, 전체 초1·2의 80%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초1·2 돌봄 공백 해소

※ '24년 초1 늘봄학교 참여: '24.12 기준 29.6만명(희망자 전원) 참여, 참여율 83.4%
'25년 늘봄학교 참여 희망 비율: 초1 92.7%(‘24.12 KEDI), 예비 초1 90.3%(‘24.12 문체부)

- 필요한 인력·공간·프로그램을 충분히 확보하고, 학생·학부모가 희망하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여 초1·2 학생·학부모 만족도 80% 이상 달성 추진

※ '24년 초1 학생·학부모 만족도(‘24.12 KEDI): 학생 87.4%, 학부모 85.7%

□ 온 사회 협력으로 프로그램의 질 제고

- 라이즈와 연계하여 교육청-지자체-지역 대학이 함께 지역 수요에 맞는 늘봄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고, 교육청별 자체 지역 대학 협업 사업 운영

※ 지역별 늘봄학교 프로그램 수요의 약 10% 내외를 지역 대학 협업을 통해 공급

- 16개 부·처·청과 협업하여 분야별 특색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고, 공공·민간기관 협업, 교육기부 등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확보

※ '25년 라이즈 연계, 16개 부·처·청 협업 신규예산 총 320억 원 확보

- 예체능 동아리 활동 내실화, 예체능 교육 프로그램 제공 확대를 통해 정규수업 및 늘봄학교를 연계한 1인 1예체능 프로그램 지원

※ 체육: 초등 학교스포츠클럽 참여학생 수 ('24) 221만 명 → ('25) 230만 명 목표
예술: 초등 오케스트라 운영 ('23) 598교 → ('24) 751교 → ('25) 800교 목표

□ 늘봄학교 전담 운영 체제 안정화

- 늘봄지원실장*(‘25년 1,500여명, '26년 1,000여명)·늘봄실무인력(학교별 1명 이상) 중심 업무 전담 체제를 안정화하여 교사의 늘봄 행정 부담 해소

* 늘봄지원실장 겸임 또는 미배치교를 중심으로 늘봄지원센터 행정 지원 강화,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교사 배치('25년 1,080명) 등을 통한 인력 보완 대책 마련·추진

- 아동친화적 교실 구축(1,825실 추가), 교사연구실 확충(658실 추가), 거점형 늘봄 등 학교 밖 공간 활용 모델 확산을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 마련

정책방향 ②

사교육·입시 부담 완화

- ◆ EBS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활용한 ^(가칭)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
- ◆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과 교원역량 강화로 영포자·수포자 없는 교실 만들기
- ◆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, 고교 내신 체제 전환(9→5등급제) 등으로 더 나은 학습환경 조성

① 사교육 수요 흡수를 위한 공공 서비스 제공

□ 지역 맞춤형 사교육 경감 모델 지원

-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중심으로 우수 사교육 경감 모델을 발굴·확산하기 위해 ‘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·학교’ 사업 확대(‘24. 12개 → ‘25. 25개 지역)
- EBS 온라인 학습 서비스 등*을 활용하여 초등(고학년)~고등학생 대상으로 관리형 독서실 방식으로 운영하는 ^{가칭}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
 - 지역 내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센터 구축 및 센터 내 학습관리 인력(담임)을 배치하여 학생 출결 점검, 학습 코칭 등 실시

* EBS 동영상 강의, AI 단추 서비스(진단평가+학습추천) 활용

※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확대 추진

□ 입시정보 제공 확대 및 진로·학업설계 컨설팅 제공

- 대입상담교사단의 현장 밀착형 무료 상담을 지속 확대하여 학교 중심의 진로진학 상담 체계를 강화하고 대입정보포털(어디가)에서 정확한 입시정보를 무료로 원스톱 제공
- 학생 스스로 교육과정(시간표)을 구성(e플래너)하고, 현직 교사의 진로·진학·학습전략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·운영(‘25.1.~)
 - ※ 현장 교사 대상 연수를 통해 진로·학업 설계 컨설팅 역량 제고 도모

② 디지털 기반 맞춤형교육으로 교육격차 해소

□ AI 디지털교과서(AIDT)를 활용한 개별 맞춤형 교육 실현

- 기초학력 진단-보정시스템(초1~고2)을 통해 학년 초 진단한 기초학력 도달 여부를 바탕으로 AIDT와 연계한 수준별 학습 추진
 - ※ AIDT 번역기능을 활용하여 다문화·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 강화
- 책임교육학년인 초3·중1은 학업성취도 자율평가*와 AIDT 학습분석을 통해 학습수준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교과보충·튜터링 등과 연계 지도
 - * 책임교육학년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전체 학생이 참여하도록 권고

- 초3 대상 선택형 늘봄 프로그램에 'AIDT 활용 보충학습'을 개설하고, 중등 방과후학교 內 AIDT 연계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 운영
- '25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과목별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위한 학습자 분석·지도와 수준별 콘텐츠 제공에 AIDT 적극 활용
- AIDT를 활용하는 연구학교·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AIDT 활용의 효과성을 검증하고,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AIDT 활용 지원

□ 교원의 AIDT를 활용한 학습설계 지원

-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체계에 따른 교실혁명 선도교사연수(1.15만 명) 및 일반교원(6.6만 명) 연수, 찾아가는 학교컨설팅(3천 교) 추진
- 연구대회, 교사연구회 등을 통해 AIDT 활용 우수사례와 수업 영상을 발굴하고 '수업의 숲'을 활용해 우수사례 확산
- AIDT를 활용한 우수한 수업콘텐츠와 교수학습설계 제작을 독려하고 확산하기 위해 교원 인센티브를 적극 확대

③ 배움에 집중할 수 있는 고교교육 환경 조성

□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('25~)

- 학생의 진로·적성과 연계한 학업 설계 지도 및 과목 이수 기준 미도달 학생 대상 보충지도 확대 등 책임교육 강화
- 학생이 지역·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공동교육과정, 온라인학교, 학교밖교육 개설 과목 운영 활성화('25.~)

□ 고교 내신 5등급 체제 전환으로 평가 내실화

- '25년 고1부터 내신 9등급제를 5등급제*로 개편하여 학생간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평가 자체보다는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
- * 1등급(10%) - 2등급(24% 누적 34%) - 3등급(32% 누적 66%) - 4등급(24% 누적 90%) - 5등급(10% 누적 100%)
- 대입에 필수적인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교 전 과정에 대해 절대평가(A~E) 등급과 함께 상대평가 5등급을 병기하여 대학에 제공
- 절대(성취)평가 안착 및 논·서술형 평가 확대 등을 이끌 선도교원을 양성(高 1,000명, 中 1,000명)하여 신뢰도 높은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원

정책방향 ③

맞춤형 지원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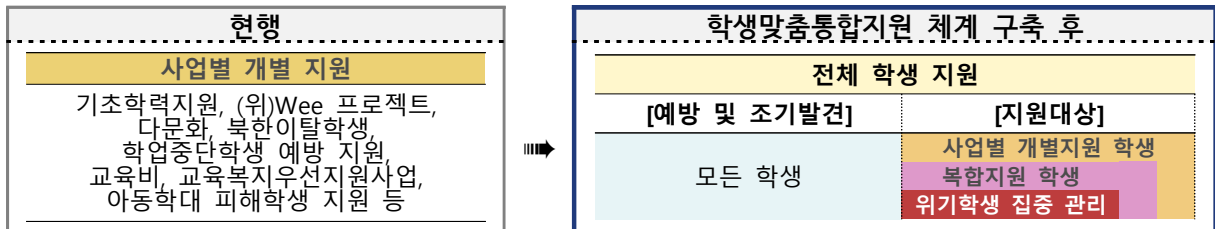
- ◆ 모든 학생이 능력·특성에 맞춰 지원받는 통합지원체계 마련 (선도학교 ('24) 252교 → ('25) 350교)
- ◆ 이주배경학생, 장애학생, 저소득층 등 우선지원대상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
- ◆ 교사의 수업전념 여건을 조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·발달을 지원

①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로 패러다임 전환

□ 모든 학생이 능력·특성에 맞춰 교육받는 체계로 개편

- 기초학력 부진, 경제적 곤란 등 학생의 다양한 어려움 해소뿐 아니라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패러다임 전환
- 학교·교육청에 상호 분절적인 학생 지원 사업을 연계·조정하는 위원회(센터)를 두고 학습·복지·건강·진로·상담 등 통합지원체계 마련

※ 선도학교 : ('24) 252교 → ('25) 350개교 / 시범교육지원청 : ('24) 57개 → ('25) 84개



□ 학생맞춤통합지원 모델 개발·확산 등 전면 확대 준비

- 기관간 정보 연계·활용 및 타 부처 시스템과 연계한 '가칭'학생맞춤통합 지원정보시스템' 구축 방안 마련, 실태조사 실시, 교원 등 연수*
- * 현직교원 등 인식 및 역량 제고, 예비교원 대상 교·사대 양성과정 프로그램 개발·확산 등
- 「학생맞춤통합지원법」 제정에 따라 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시행령·시행규칙 제정, 조례(안) 마련, 기관별 매뉴얼 개발 등 추진
- ※ 현장에서 원활히 운영되도록 시도별 교원 정원 배정 시, 학생맞춤통합지원 수요 반영 검토 등

② 우선지원대상에 대한 두터운 지원

□ 이주배경학생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

- 한국어역량, 체류자격을 고려한 조기적응·진로진학·취업 등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, 초등 중심 교육지원을 중·고교*, 영유아, 학부모로 확대
- * (중·고교) 한국어학급 확대, 진학·취업 등 진로교육 강화, 특성화고 특화 모델 구축
- 이주배경학생의 강점과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교육과정 등 학교 운영상 특례를 부여하여 지역과 학교의 여건에 맞는 우수한 교육모델 창출
- ※ 연구학교 운영(32개교) 및 교육여건·프로그램 개선 지원을 통해 특색있는 학교운영 모델 발굴

- 관련 특별법 제정* 및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, 교육발전특구 등과 연계하여 지자체·교육청·유관기관 협력 강화
- * 주요내용(안) : 이주배경학생 적정 배정, 학교 예산인력 지원 근거, 관계기관 연계 체계 구축 등

□ 특수교육 여건 개선 및 장애교원 확보

- 장애아동이 가정에서 가까운 전담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아 전문·통합 어린이집을 매년 80개씩 확충('25. 1,956개소)
- 특수교육대상자 급증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특수교사 지원 및 특수학교(급) 확충 추진(과밀학급 '24. 10% → '25. 6%)
- 장애인의 교직 진출 확대를 위한 임용시험 장애구분모집 총정원제*를 홍보하고, 임용후 지원 제공으로 근무환경 개선 추진

* (기존) 과목별 분리 선발로 소수 과목에서는 장애인 미선발 → (개선) 모든 과목에서 선발 가능

□ 저소득층 대상으로 두터운 지원

- 저소득층 유아(사립유치원 재원)에 월 최대 20만 원 유아학비를 추가 지원하고, 교사 역량 강화*를 통한 언어·인지·정서·심리 집중 지원
- ※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월평균 15.9만 원('24.4월 유치원 정보공시 기준)
- * '25년부터 4대분야 연수 추진(교육과정 실행, 영유아 지원, 정서발달 지원, 특별한 영유아)
-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(기준중위소득 50% 이하) 초·중·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를 전년 대비 약 5% 인상
- * 지원금액 : (초) 461 → 487천원, (중) 654 → 679천원, (고) 727 → 768천원 / 연 1회
-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대상(現 중1~고3)을 초5~6까지 확대, 영재키움 프로젝트 지원대상(現 초4~고3)을 초3까지 확대하는 등 우수학생 조기 발굴을 위한 관련 사업의 지원대상 범위 확대

③ 교사의 수업전념 여건 조성

□ 학교 민원대응 역량 강화 및 학교 행정업무 경감 추진

- 학교 민원대응팀 등 민원응대 여건 현황 점검 및 담당자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고, '학교민원 처리 계획' 수립 및 온라인 민원(소통) 시스템* 구축
- * 나이스 학부모시스템과 연계하여 보호자 대상 상담 및 민원 신청, 방문상담 예약 등을 지원
- 온라인 시스템(나이스, K-에듀파인) 기능 고도화를 통한 업무 간소화('25.1.~) 및 학교지원 전담기구의 법제화 추진으로 전담기구 안정적 운영 지원

□ 교원역량개발지원체계 마련으로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

- 자기역량진단용 역량지표*를 개발('25~'26)하여 향후 교원양성·임용·평가·역량개발 등의 준거로 기능할 수 있는 체계 마련
- * 교원에게 필요한 '공통 역량'과 교사의 특성 등을 고려한 '개별 역량' 등을 기반으로 개발
- 역량 진단결과와 연계한 AI 기반 맞춤형 연수 지원 및 특별연수(학습연구년제 등) 확대 등 교원 역량개발을 위한 전문적 지원체제 구축

④ 학생의 건강한 성장·발달 지원

□ 학생의 건강한 성장 및 마음건강 지원 강화

- 학교의 장 주관의 학생 검진을 건보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내용의 시범사업*('24. 세종·원주에서 1개소 추가) 추진 등 전국 확대 준비
- * 실효성이 저하된 일부 검진 항목 제외 등 학생 연령대 특성을 고려한 항목 조정 추진
-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시수 확대(中 102→136시간), 아침·점심시간 등 틈새 운동 확산, 학생건강체력평가제(PAFS) 적용 확대* 등을 통해 체육활동 일상화 지원
- * ('24) 초4 선택, 초5~고3 의무 → ('25) 초3 선택, 초4~고3 의무
- 모든 학교에 보편적 마음건강교육인 '사회정서교육'을 도입하고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 확대 및 위(Wee) 프로젝트의 기능 확대·개편
- ※ 긴급지원팀('24. 36개→'25. 47개), 위(Wee) 기능 확대·개편 지원('24. 4개→'25. 9개 교육청)

□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

- 연령별 학교폭력 발생 양상,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 등을 고려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'제5차 학교폭력 기본계획('25~'29)' 수립
-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, 예방교육자료·대응매뉴얼 제작·배포, 교원 맞춤형 연수 등으로 선제적 예방
- 오케스트라·합창·뮤지컬 등 체험 중심 학생예술동아리 활성화를 통해 협력적 소통·배려 등 학생 인성 역량 함양
- ※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교 : ('24) 1,687교 → ('25) 1,730교 예정

□ 생애주기별 학부모 교육 제공으로 학생의 성장·발달 뒷받침

- 자녀의 발달단계상(영유아기부터 성인 초기까지) 학부모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정의하고 이에 기반한 학부모 가이드북 제작·배포(~'25.2월)
- 학부모 교육·상담이 필요한 가정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, 지자체와 연계 협력하여 학부모 교육 강화

정책방향 ④

지역 격차 해소

- ◆ 교육발전특구(총 56건, 7개 광역 / 83개 기초)의 지역특화 교육혁신을 적극 뒷받침
- ◆ 라이즈 체계 전국 17개 시도 전면 시행으로 대학이 지역 혁신의 엔진 역할 수행
- ◆ 평생교육이용권 확대(8만 명→ 11.5만 명)를 통한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기회 보장

① 교육발전특구로 지역 교육력 향상

□ 지역 현장 중심 맞춤형 교육혁신 기반 조성

- 교육발전특구의 법적 근거와 지역특화 특례*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「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 추진
* 다문화 교육과정 지원, 통합학교 지원, 지역교원제 신설 등 지역 요청에 따른 규제개선 추진
- 지자체, 교육청, 대학, 지역 산업체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,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교육개혁 현장 착근을 위한 협업 플랫폼 기능 강화
※ 핵심 교육개혁 과제(늘봄학교, 유보통합 등)를 위한 주요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운영 예정

□ 인구감소 등 지역 현안을 고려하여 교육자원을 효과적으로 투입

-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교원과 학교시설을 재배치하여 소규모 학교를 적정규모화하는 등 기존 학교를 지역의 명품학교로 육성
※ 교육부-교육청-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별 여건 분석 및 학령 인구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적정 규모화 및 집중 지원방안 발굴 추진
- 학생 교육과 정주여건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을 '25년까지 누적 120교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공모·선정('25. 3,600억 원)

② 대학이 성장동력이 되는 지역의 변화

□ 지역-대학이 함께 주도하는 라이즈 체계 본격 가동

- 라이즈 체계 전국 가동으로, 유·초중등·고등교육의 질·산업 기반·정주 여건 등 지역 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지역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
※ 국비 2조 10억 원 대비 지방비 20%+α 매칭으로 총사업비 2.4조 원 이상 확대 예상
- 범부처의 교육·산업·연구·정주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을 라이즈를 플랫폼으로 연계하여 '인재양성-취·창업-정주 생태계' 조성
※ (과기부) 대학-출연연 벽허물기, (산업부·중기부) 대학-기업 협력, (고용부) 기업 취업 지원

□ 대학의 역할 전환으로 지역 인재양성 경쟁력 강화

- 글로벌대학 혁신 모델의 제도화·확산* 및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**으로 수도권-지방 간 고등교육 경쟁력 격차 해소
 - * 지역전략산업 중심 학사구조 개편, 대학-출연연 융합 특성화대학원 운영, 다양한 대학 통합 및 연합모델 확산 등
 - ** 「사립대학 구조개선법」 제정 및 사립대학 재정진단·경영자문을 통한 학과 구조조정, 소규모 특수목적화, 지역 특성화 등 추진
- 지역별 학·연 협력 플랫폼을 확산하고 공동대학원(학과) 등 학·연 협력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우수연구인력 양성
 - ※ ('24) 과기부, 4개 시도에 플랫폼 구축 → ('25~) 교육부·과기부, 라이즈와 연계하여 전국 확산
- 지역인재전형 확대(의학계열 60% 이상 권고)*와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(35%, '24.8.~) 등으로 지역인재 육성 강화
 - * 지역인재육성지원사업('25. 신규, 4개 지역)으로 선발 확대, 전형 고도화 등 추진

③ 평생학습으로 미래대응 역량 제고

□ 지원 범위 확대로 평생학습 접근성 제고

-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분야에 디지털·노인 분야를 신설하여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, 저소득층·장애인에 대한 평생학습 지원은 강화
 - ※ 평생교육이용권('24. 8만명 → '25. 11.5만명) : ▲(디지털) AID 커리어점프 패스 1만 명, ▲(노인) 0.8만 명, ▲(장애) '24. 0.9만명 → '25. 1.2만명, ▲(일반) '24. 7.1만명 → '25. 8.5만명
- 고용노동부 「국민내일배움카드」와 교육부 「대학생 1인-평생학습 1계좌」를 연계하여 대학생의 사회 진출 전 미래 직업 능력개발 지원
- AID 선도대학(100교)을 지정하여 대학이 성인 맞춤형 AI·디지털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, 성인이 원하는 대학에서 재교육·향상교육을 받도록 운영

□ 전문대학을 직업교육 거점기관으로 육성

- 3주기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('25~'27)을 통해 사회 변화에 대응한 고등 직업교육 기반을 내실화하여 학생들과 지역주민의 교육기회 확대
- 교육부-고용노동부 협업을 통해 개별 전문대학이 강점을 가진 특성화 분야와 산업현장의 인력 양성 수요에 부합하는 직업훈련 개설 확대

정책방향 ⑤

청년 성장 지원

- ◆ 우수 직업계고 100개 육성(25. 협약형 특성화고 10교, 마이스터고 3교 내외)으로 고교 직업교육 혁신 지원
- ◆ 국가장학금(100만 명→150만 명), 근로장학금(14만 명→20만 명) 지원대상 확대
- ◆ 산학협력으로 청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, 우수 인재의 역량 발휘 기회 확대

① 고교 직업교육 혁신으로 우수 기술인재 육성

□ 우수 직업계고 육성 및 모델 확산

- 지자체-교육청-지역기업-학교 등이 협약을 맺어 지역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(~27. 35개), 첨단분야 마이스터고 확대(~27. 65개)
※ ('25년) 협약형 특성화고 10교 내외(최대 45억 원 지원), 마이스터고 3교 내외(50억 원 지원)
- AI·SW 등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마이스터고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*하고, 학과 개편 및 첨단 시설·설비 구축 지원(학급당 3.75억 원)
* 마이스터고 재도약('25. 3개교, 5억) AI·SW 활용 프로젝트 수업 첨단 기자재 구축, 졸업생 지원센터

□ 부처 연계 직업계고 학생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

- 지역 고용센터,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직업계고를 연계하여 진로설계, 기업탐방, 내일배움카드발급 등 취업 지원(고용노동부 협업)
- 공공부문 고졸 채용 확대 추진* 등 양질의 일자리 지속 발굴
* 공공기관 고졸 채용 만점비율 상향 추진(8→9%), 군무원 지역인재 채용 신설(국방부 협업)
- 직업계고 졸업생 중 진로 미결정자 대상 취업을 지원하는 거점학교 확대 ('24. 17개교(약 17.5억 원) → '25. 24개교(약 24.5억 원))

② 학자금 및 주거 지원으로 고등교육 기회 확대

□ 학자금 부담 경감

-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현재 8구간 이하(100만 명)에서 9구간 이하(150만 명)로 확대하는 등 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
※ 국가장학금 예산 : ('24) 4,097,498백만원 → ('25) 4,485,299백만원
- 근로장학금 지원대상 확대(14만 명→20만 명)로 대학생들의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경험을 쌓도록 하고 생활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
※ 근로장학금 예산 : ('24) 469,125백만원 → ('25) 627,442백만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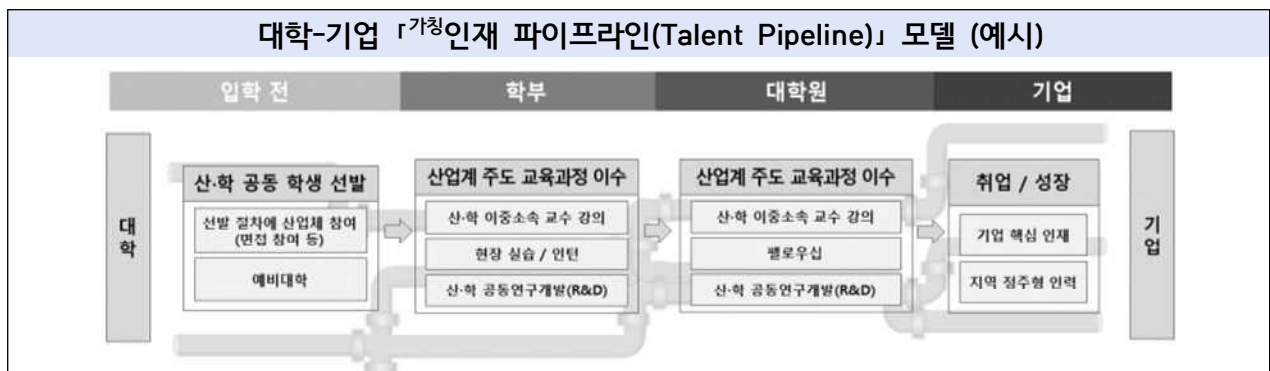
□ 대학생 주거비 부담 완화

- 저소득층(기초·차상위)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하여 연 최대 240만원 지원 추진 ※ 주거안정장학금 예산 : 34,435백만원
- '24년 착공한 총 4개의 연합기숙사(서울 3개소, 인천 1개소)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저렴한 월세의 양질의 주거환경 제공
※ 용산·한체대 연합기숙사('26.2. 완공), 서울과기대·인천대 연합기숙사('27.2. 완공)

③ 일자리 연계로 취업 준비부담 경감

□ 대학-기업 「가칭」인재 파이프라인(Talent Pipeline)」 추진

- 중소(전)기업의 대학 교육과정 설계·운영 참여를 확대하여 졸업 후 중소기업 채용 연계 등 대학에서 배출된 인재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로 연결
※ RISE를 통해 지역별 우수모델 확산(충남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위한 인재 파이프라인 추진)
- 계약정원 자율학부 모델 확산 및 규제개선 등 계약정원 활성화를 통해 산업계 주도 교육과정 설계·운영 확대 및 졸업 후 채용으로 연결
 - 계약정원·학과에 입학 가능한 직원의 범위를 자사에서 협력·하도급 업체의 직원까지로 확대해 대기업-중소기업 상생 지원
※ 계약학과: 818개(수도권:52% 비수도권:48%), 재학생: 22,158명, 산업체 수: 10,975개('24. 기준)
- 지역 중소기업 등 우수인력이 대학 교원 이중소속으로 산업계 맞춤형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대학 교원과 현장 감각을 가진 기업전문가의 연결
※ 이중소속 교원이 현장연계 강의 제공, 산·학 공동 연구 프로젝트 진행 등 역할 수행



【해외사례】 Arizona State University(ASU) 산학협력 사례(Talent Pipeline Expansion)

- TSMC의 인력 확보와 애리조나의 반도체 산업 강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해 ASU와 TSMC간 협약 체결
 - ASU 학생들에게 학부 장학금, 석사 펠로우십, TSMC에서의 인턴십 기회 등을 제공하고, TSMC는 ASU 졸업생을 대거 채용, TSMC 직원을 대상으로 ASU에서 비학위 교육과정 운영

□ 청년 취업 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

- 표준현장실습 인정범위를 실습비 자부담(75% 이상) 기업에서 부처 또는 지자체가 선정·관리·지원하는 기업으로 확대
※ 현장실습 기업의 질 관리와 함께 현장실습 기업 확대 동시 추진
- 대학생·전문대학생에게 전공과 연계한 해외 직무경험을 제공하는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내실화 및 현지 취업 지원
* 유아교육 분야 현지 취업 지원을 위해 캐나다 주정부와 MOU 추진 중 (25년초 체결 목표)

④ 청년의 역량 발휘 지원

□ 우수 의료인력 양성 지원

- 교육부에 의대 교육 전담 조직인 '의대교육지원관'을 설치·운영(~'25.12.)하여 교육·학사·인프라 개선 등을 종합 지원함으로써 우수 의료인력 양성 지원
※ 라이즈 체계와 연계하여 지역별 교육여건에 따라 대학 교육과정 혁신 병행

□ 우수한 연구인력의 연구 기회 확대

- 연구생에 진입 단계의 대학원생, 박사후연구원 등에 대한 연구 장려금 등 지원 확대로 우수한 연구자로의 성장 지원

인문	• '25년 인문사회분야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신설(100명, 연 12백만 원 지원)
----	---

이공	• 이공계 석·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대폭 확대, 박사후연구원 등 대상 맞춤형 지원 신설
----	--

- HK 3.0(인문사회), 대학연구혁신 프로젝트(이공) 등을 통한 대학연구소 지원으로 연구자의 연구기회 확대 및 혁신적 연구생태계 지원

인문	• HK3.0('25.신설) : 인문 중심의 공동연구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(컨소시엄형 연 20억, 거점형 연 8억)
----	--

이공	• 대학연구혁신 프로젝트 : 국가연구소(연 100억)-대학기초연구소(연 50억)-글로벌랩(연 17억)
----	--

□ 대학 중심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확대

- 첨단분야 특성화대학 분야를 기존 '반도체·이차전자'에서 '바이오'까지 확대, '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*(단기 집중교육과정)'를 통해 취업 역량 강화 지원

* '24. 42개 대학 (630억 원) → '25. 44개 대학 (660억 원, 신규 2개 대학 선정 예정)

- 라이즈 체계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을 연계하여 지·산·학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산업을 견인할 융합 인재 양성 지원

※ 인공지능, 반도체, 이차전자, 지능형로봇 등 18개 첨단분야 인재양성 지원

- 학생이 흥미·적성에 맞는 진로 탐색 및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공자율선택제 등 교육혁신을 통한 미래융합형 인재 양성 지원

※ 모집인원 : ('24) 9,925명 → ('25) 37,935명(수도권대 51교, 국립대(교대·특수목적대 제외) 22교)

추가 과제

추진 기반 구축

① 데이터 수집·분석 시스템 구축

□ 교육행정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운영

- 분산된 교육 관련 데이터*를 통합 수집·분석하여, 업무효율화·행정과학화에 기여하는 ‘교육행정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’ 운영

* 나이스(교무·학사), K-에듀파인(행·재정), 각종 통계, 공시, 실태조사 자료 등

- 시스템을 통한 자동 집계·분석으로 교육청·학교 현장의 업무경감 지원

- 교육개혁과제 등 주요 정책·현안을 시각화·분석모델 등을 통해 자유롭게 분석하여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 구현

□ 데이터 기반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

- 교육 분야 중심으로 범부처 데이터를 연계하여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 통계 개발

※ (예) 6~17세 아동·청소년 현황 통계(해외출국 현황, 청소년 근로 현황, 장기입원 현황 등 종합)

② 글로벌 교육 거버넌스 선도

□ APEC 교육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 준비

- APEC 교육장관회의(‘25.5., 제주) 등 대규모 국제행사 계기 글로벌 교육·혁신 얼라이언스(GEIA) 지평 확장 등 글로벌 교육 리더십 강화
- ‘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와 포용적 성장 촉진’을 주제로 APEC 회원국과의 협력 강화 계기 마련 및 아젠다 주도

□ 지속가능한 글로벌 교육협력 생태계 구축

- 높아진 국가 위상과 새로운 글로벌 교육 정책 수요(디지털, 한국어, KEdu 등)에 효과적·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립국제교육원 기능 개편
- 민간 전문가(대학·연구기관 등) 파견 등을 통해 축적된 국제 교류협력 경험·노하우, 전문성, 네트워크 활용 강화 추진
- 초·중등 및 고등교육의 국제화 선도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,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인재 유치 및 통합정보 제공·지원 허브 역할 강화

IV. 2025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.

